

# 행정통합 ‘광주·전남특별시’ 특별법 초안 윤곽

8편 288조 구성…국가 균형발전 정책 일환 규정 포함

초광역 자치정부 모델 설계…상임위 심사 거쳐 반영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초광역 자치정부 모델의 설계가 담긴 특별법 초안의 윤곽이 공개됐다.

12일 광주시가 각 부서·기관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개한 특별법 검토안에 따르면 법률명은 특별시로서 통합 지방정부의 지

위를 정한 점을 반영해 가정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으로 하기로 했다.

목적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대표되는 호국·민주의 역사와 남도문화의 전통을 바탕으로 광주시와 전남도를 통합한 광주·전남특별시를 설치한다’며 ‘인공지능(AI)·에너지·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기반

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판을 열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계획이다.

통합의 기본 정신에 5·18 등 역사적 배경이 자리 잡고 있는 동시에, AI·에너지·반도체 등 미래 산업 육성을 통한 지방분권과 균형성장 등 통합의 이유를 함께 적시했다.

특별법 조문 체계는 8편 24장 2절 288조로 구성되며, 광주시와 전남도를 통합한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핵심으로 한다.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특별법 제1편 총칙에는 통합의 목적과 함께 국가의 책무와 특별시의 책무를 명시해 통합을 지역 차원의 선택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규정하는 조문이 포함될 전망이다.

제2편은 특별시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특별시 설치, 지원위원회 구성, 중앙행정기관 권한 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 광역생활권 지정 등 중앙정부 권한을 특별시에 구조적으로 이양하는 것을 전제로 한 방안을 반영

한다.

제3편은 특별법의 핵심인 자치권 강화 규정이다.

지방의회와 자치행정, 자치경찰, 감사위원회와 함께 자치재정에 관한 규정을 적시해 정부가 지원할 재정 특례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제5편은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라는 제목으로, 산업 정책이 담겼다. AI, 에너지, 반도체, 모빌리티 등 첨단 전략산업과 문화, 관광, 농수축산, 기후환경까지 아울러 특별시를 국가 미래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외에 제6편은 지역균형발전 등 통합 후 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규정으로 채워지며 제7·8편은 보칙과 부칙이 각각 반영된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마련하는 특별법 초안과 별도로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는 15~16일 지방의 재정자립 방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특별법 발의 후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 등에서 수정·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고, 내란 종식·검찰개혁·사법개혁·민생 개선에 시급히 나서겠다”고 발언하고 있다.

한병도

## AI부터 로봇개까지…출판기념회장이 달라졌다

강기정 시장 행사서 지역 6개 기업 체험 부스 운영

강기정 광주시장의 출판기념회가 열린 지난 1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 로봇개가 등장하고, 인공지능(AI)이 얼굴을 자동으로 모자이크 처리하는 CCTV 화면이 실시간으로 시연돼 눈길을 끌었다.

출판기념회가 단순한 책 소개 자리를 넘어, 첨단 기술을 직접 보고 체험하는 ‘기술 팝업스토어’로 확장된 모습이었다.

행사장에는 광주지역 인공지능(AI)·로봇 등 기업 6곳(빛온·위치스·쉐어플랫·메가웍스·닥터케이·옵토닉스)이 참여해 부스를 운영했다. 부스는 일반 전시회처럼 넓게 분산 배치되지 않고,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등 주요 이동 동선을 따라 집중 배치됐다. 관람객들은 이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전시 공간을 지나며 발길을 멈췄고, 행사장 로비에는 시간당 1000~2000명 가량이 오갔다.

AI 로봇 기업 ‘쉐어플랫’의 이지훈 대

표는 “로봇개와 제초·운반 로봇을 전시했다”며 “참여 기업 수가 많지 않아 관람객들이 비교적 집중해서 살펴보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AI 영상 분석 기술을 선보인 기업도 참여했다. ㈜빛온은 실시간 모자이크 처리 기능이 적용된 CCTV를 설치해 시연했다. 해당 기술은 월드컵경기장 인파 관리와 재난·안전 관리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서울 중구청과 은평구청, 인천항만공사, 광주 화정동 주민센터, 전남지역 고등학교 등으로 납품 실적을 확대하고 있다.

명홍철 빛온 대표는 “출판기념회 특성상 기관장과 출마자, 언론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해 어떤 전시회보다 홍보 효과가 컸다”며 “인권 문제로 CCTV 설치에 제약이 있는 공간에서도 적용 가능한 기술이라는 점을 현장에서 직접 보여줄 수 있었다”고 전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의 출판기념회가 열린 지난 1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 로봇개가 등장하고, 인공지능(AI)이 얼굴을 자동으로 모자이크 처리하는 CCTV 화면이 실시간으로 시연돼 눈길을 끌었다.

또 “생활 밀착형 AI 인프라로서 데이터 수집과 분석 가능성을 설명하고 시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시민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AI 영상 분석을 통해 성별과 연령대 추정이 가능하다는 점에 관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정책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강연 중심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산업과 기술을 함께 소개하는 형태로 확장된 사례”라며 “출판기념회 공간 활용 방식에 변화를 시도한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정기명 여수시장, ‘여수 100년 비전’ 제시

북콘서트 진행…시정 철학·중장기 발전 구상 공유

정기명 여수시장(사진)이 자신의 시정 철학과 도시 비전을 담은 저서 ‘깊은 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 출판 기념회 시민들과 만났다.

정 시장은 지난 10일 여수시민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준비된 여수 100년, 함께 만드는 좋은 세상’을 주제로 여수의 중장기 미래 구상을 설명했다. 주최 측 추산 3000여명의 시민이 행사장을 찾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정 시장은 집필 배경과 함께 민선 8기 동안 추진해 온 시정 방향을 소개했다. 책에는 시민 행복을 행정의 중심에 두는 원칙, 여수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도시의 장기 발전을 내다본 비전 등이 담겼다.



“여는 글”에서는 “진정한 동행자는 앞서 걷는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뒤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문구를 인용하며 조용한 리더십을 강조했다. 정 시장은 “깊은 물일수록 소리 없이 흐른다는 수심미제로 향한 걸음 등 네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 우흥섭 전 진도부군수 “완도의 새 도약 준비”

출판기념회 성황…박지원 의원 등 축하 메시지

우흥섭 전 진도부군수(사진)가 완도문화예술의전당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완도의 미래 구상을 제시했다.

지난 10일 열린 출판기념회 행사에는 2000명 이상의 군민이 참석해 객석을 가득 메웠다.

영상 축하 메시지에 나선 박지원 의원은 “현직이 아닌민 시절에도 우 전 부군수가 직접 찾아와 전남 균형발전 프로젝트 등을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했다”며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성과로 증명해 낸, 현장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40년 넘게 지켜본 결과 한결같이 완도를 사랑해 온 사람”이라며 “부군수 재직 당



정세균 전 국회의장 역시 영상 메시지로 축하를 전했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형식에서도 눈길을 끌었다. 책에 담긴 ‘부자완도 설계’의 핵심을 인공지능(AI)이 즉석 질의응답으로 구현하는 프로그램이 소개돼, 변화하는 행정 환경과 기술 흐름에 대응하는 저자의 문제의식과 접근법을 직관적으로 전달했다는 평가다.

이현규 기자 gnnews1@

## 서민·소기업·소상공인, 정책개발 ‘머리 맞대’

송승종 더민주 전국희망연대 부회장, 광주서 현안 논의

송승종 더민주 전국희망연대 중앙회 부회장(광주북구민생경제연구소 이사장·사진)이 당내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한 광주지역 조직 행보에 나섰다.

송승종 부회장은 최근 박태영 중앙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더민주 전국희망연대 광주시협의회 임원회의에 참석해 안정적 국정 운영 지원과 6·3 지방선거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호남지역 임원 등 30여 명이 함께했다.

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 현인과 조직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교



환하고, 향후 정치 참여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송승종 부회장은 “더민주전국희망연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민간조직”이라며 “서민과 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 잘사는 정책을 개발하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민주 전국희망연대는 향후에도 전국 단위 연대와 협력을 확대하고, 시민과 현장을 중심으로 한 정책 활동과 사회적 실천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